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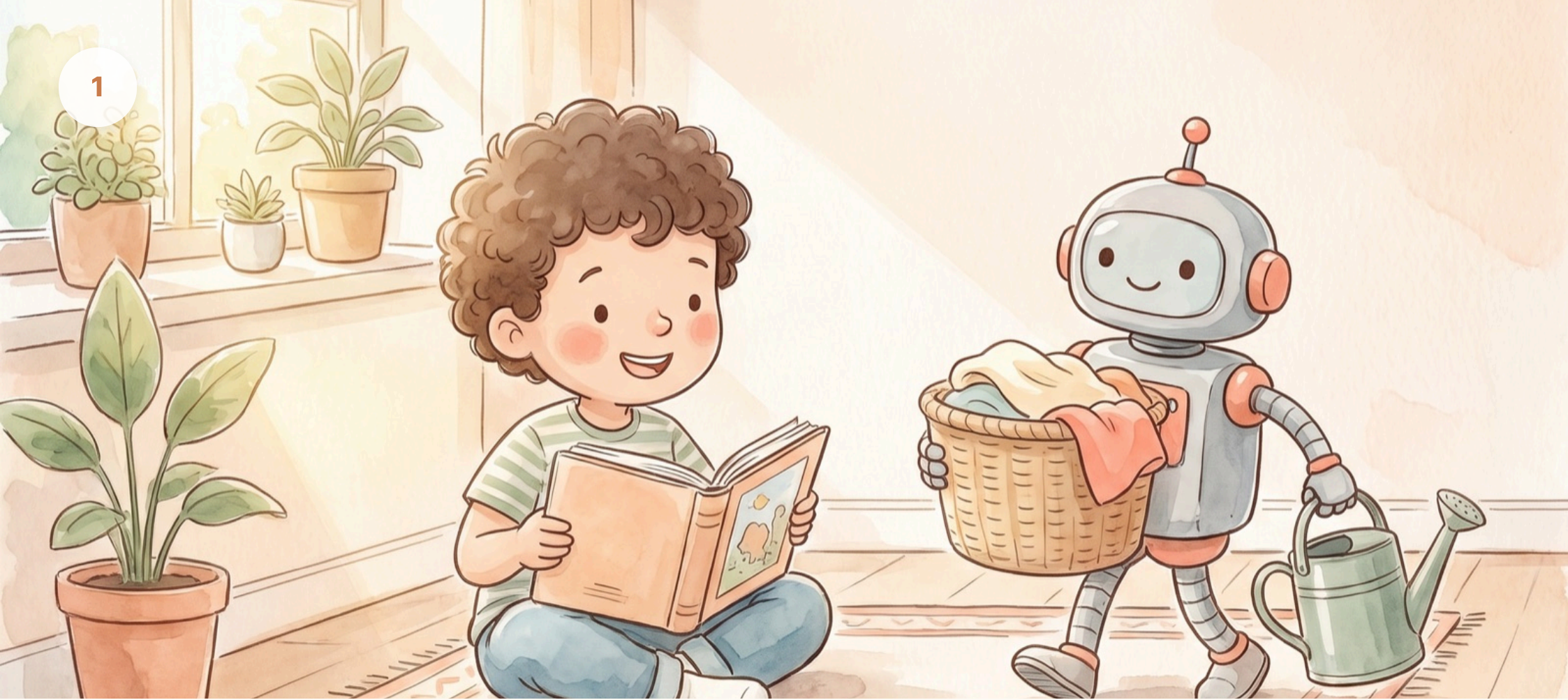


KIDS RUNNING

너는 커서 몇 개가 되고 싶어?

AI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, 사람은 무엇을 할까?
최태원 회장의 「AI 시대」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보는 그림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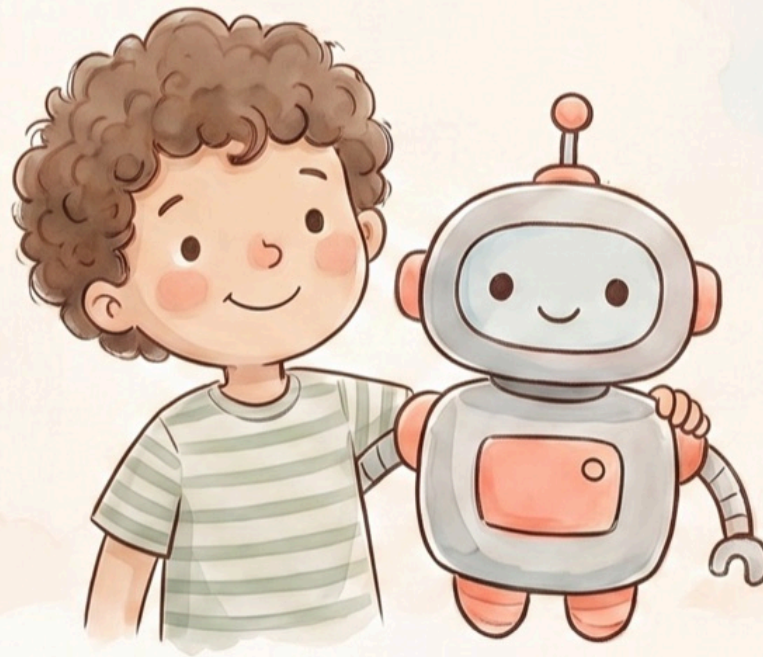
키즈러닝 엄마 영차! · 4회차 · 2026. 09. 09



“이거 좀 해줘” 하면 해주는 친구

옛날 컴퓨터는 물어보면 대답만 해줬어요.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. “빨래 좀 넣어줘” 하면 정말로 넣어주는 친구가 생기고 있거든요. 그럼 우리에게서 시간이 남아요. 그 남은 시간에 너는 뭘 하고 싶어?

💡 “네가 로봇한테 하나 시킬 수 있다면 뭘 시킬래?”



키가 비슷해졌어

예전에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주 컸어요. 그런데 모두가 똑똑한 도구를 하나씩 갖게 되면, 그 차이가 아주 작아진대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. 진짜예요.

💡 “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을까?”



의사가 아닌데, 강아지를 고쳤어

어떤 형이 있었어요. 키우던 강아지 로지가 많이 아팠는데, 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대요. 형은 의사가 아니었어요. 대신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했어요. 컴퓨터로 로지의 몸을 열심히 살펴본 거예요. 그렇게 로지만을 위한 약을 만들었고, 로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.

💡 “네가 정말 고쳐주고 싶은 게 있어?”



모자를 여러 개 써도 돼

어른들은 “커서 뭐가 될래?” 하고 하나만 물어봤어요. 그런데 이제는 하나만 고르지 않아도 된대요. 요리도 하고, 그림도 그리고, 로켓도 만들고 — 모자를 여러 개 써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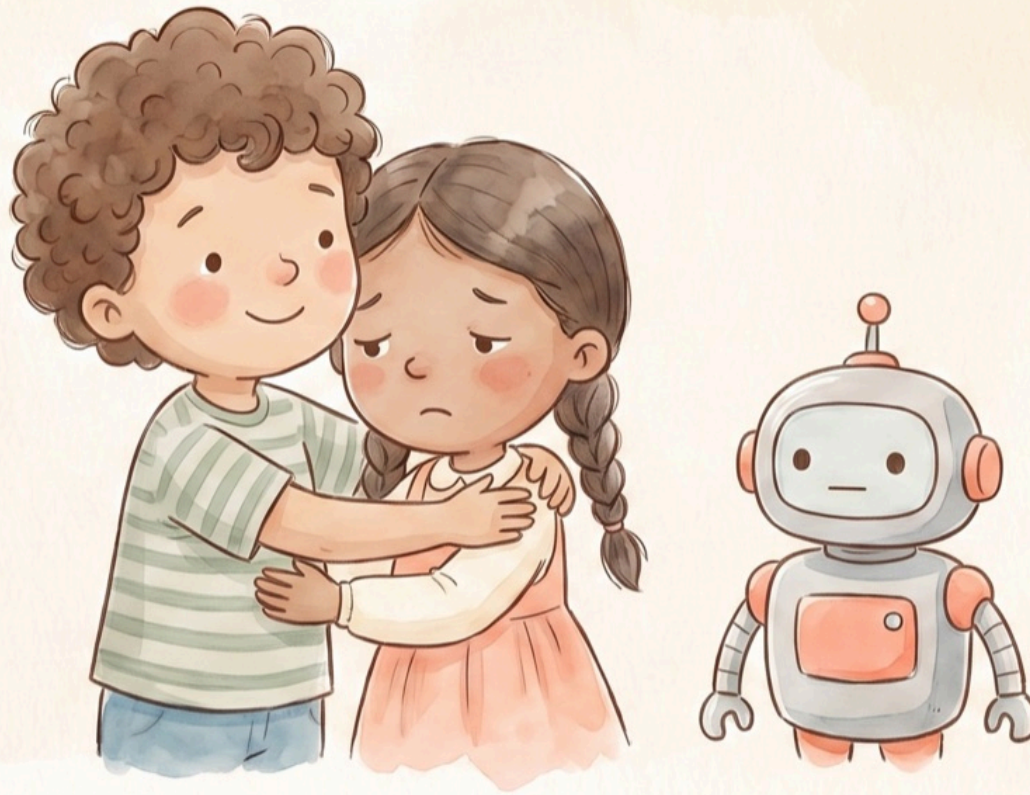
💡 “너는 커서 몇 개가 되고 싶어?”



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

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, 오늘 맞았던 게 내일은 틀릴 수도 있대요. 그래서 어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건 “틀리지 않는 것”이 아니라 “틀린 다음에 다시 해보는 것”이었어요. 달리기랑 똑같아요. 넘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뛰면 되니까요.

💡 “넘어졌는데 다시 해본 적 있어?”



안아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어

똑똑한 기계는 숙제도 풀고 그림도 그려요. 우리보다 빠를 때도 많고요. 그런데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먼저 다가가서 안아주는 것, 그건 아직 사람만 할 수 있대요. 어쩌면 앞으로도요.

💡 “로봇이 못 하는 건 뭘까?”



몸으로 하는 것은 계속 남아

달리는 것, 그리는 것, 노래하는 것. 기계도 흉내는 낼 수 있대요.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까? 사람이 몸으로 해내는 건 계속 남을 거래요.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, 같이 달립니다. 영차!

💡 “몸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?”

부모님께 · 이 그림책을 보고 나서

이 그림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강연의 결론도 “10년 뒤에 뭐가 남을지는 저도 모릅니다”였어요.
그러니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알려주지 마시고, 아이가 말할 때 그냥 들어 주세요.

- 🍲 “몇 개가 되고 싶어?”로 물어봐 주세요. 하나로 좁히지 않아도 됩니다. 열 개여도 좋아요.
- 🍲 지금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. 모두가 AI를 쓰게 되면 능력 차이는 작아진다고 합니다.
- 🍲 실패해도 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 만들어 주세요.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, 마음껏 틀려도 되는 시간이에요.
- 🍲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. 공감하는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자랍니다.
- 🍲 몸으로 하는 걸 하나 지켜 주세요. 달리기든 악기든 그림이든요. 그게 네 번째 근육입니다.

키즈러닝 엄마 영차!

변화하는 AI 세상에 불안해하지 않게, 엄마들과 함께 대화하는 AI 찾자리
매월 셋째 주 수요일 · 문의 @kids_running_kr

본 자료는 참석자 가정의 학습용입니다. 외부 공유·재배포를 삼가 주세요.